

[제주잠녀]95.<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66)서귀포시 수협을 끝내고

'욕심'을 버리고 '가능성'을 키운다

등록 : 2007년 12월 02일 (일) 16:13:06
최종수정 : 2007년 12월 02일 (일) 16:13:06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잠녀들에게 바다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런 바다를 바라보며 달려오기를 꼬박 1년 4개월여, 어느덧 100곳에 이르는 어촌계 중 반 이상이 발아래 닿았다.

바다의 생명력을 살려내기 위해 매를 쓰는 모습은 잠녀들 스스로의 삶을 투영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하지만 바다를 내어주고 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가능성'을 키워내는 모습은 '바다 관리'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 위미1리 어촌계 잠녀들의 작업 모습

10년 후 바다에 누가 남아있을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서귀포수협 관내 19개 어촌계 잠녀들 역시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894명의 잠녀 중 70대 이상(~80대) 점유율은 37.7%나 된다. 이는 한림수협과 비슷하다.<표 참조> 60대 이상 비율도 36.6%나 되는 등 잠녀들의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고민'차원이 아닌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40대 잠녀 비율이 6.5%로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다른 수협 관내 어촌계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은 점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של זול מורנס' 우리네 어머니를 대표하는 잠녀들에게 '금채기'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전복·소라 채취가 금지되면 해삼과 성게를 잡고, 또 많은 수의 잠녀들이 감굴 등 발농사를 겸업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만큼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다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린 것은 아니다. 대신 '욕심'은 버리고 바다에 간다.

물건을 무턱대고 잡기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보목 어촌계와 토평 어촌계. 보목에서는 아예 오분자기 작업까지 제한을 두고 물건을 만들고 있다. '200kg짜리 테왁도 모자랄 정도'의 수확량을 자랑하던 토평 어촌계 역시 '잔소라는 절대 잡지 않는다'는 자체 규정 외에도 소라 잡는 날과 오분자기 잡는 날을 지키고 있다. 전복작업은 몇 년째 손을 대고 있지 않은 채 잠녀 모두의 동의 아래 관리를 하고 있다.

남원 신흥리 어촌계에서는 잠녀들이 자부담으로 소라모패사업을 진행,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래도 바다는 아직 메말라 있다. 많은 바다에서 2~3년전의 향수를 끄집어낼 정도로 수확량은 많지 않다. "예전에는..."하고 운을 떼는 잠녀들의 목소리도 2~3년 전에 비해 한 옥타브 이상 낮아졌다.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모든 바다가 다 숨을 죽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아니다.

현대화 바람이 불면서 서귀포 수협 관내에 서귀포항과 위미항 등 항구 시설이 갖춰졌다. 그만큼 잠녀들의 작업 공간은 줄어들었다.

여기에 올 한해 거세게 불어닥친 '해군기지' 바람으로 생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가뜰이나 환율이 떨어지고 수출길이 좁아진 상황에 제대로 물에 들지도 못한 잠녀들은 바다의 '어서 오라'는 손짓에도 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바다를 열어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노력도 이어졌다.

위미 1리는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로 마을 입구부터 잘 정비된 도로에 공원 시설까지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었지만 정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법환동의 문화역사마을과 어촌관광마을 사업 역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면서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들에 밀려 잠녀들은 해산물 판매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어촌계 차원에서 마을을 관광상품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성적표가 다시 잠녀들의 삶을 고단하게 한다.

잠녀들의 희망과 현실에는 아직 큰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마을·관광객들과의 마찰을 풀기 위해 바룻잡이 어장을 개방하고, 보목자리돔축제·칠십리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잠녀와 그녀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정작 잠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지원해주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는 한 어촌계장의 말은 우리가 '잠녀'를 바라보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시선을 반영한다.